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2. 2.(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2차, 제6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3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보고안건> 2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9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 (20202-65-29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2019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2019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방송사업자가 2019년도에 실시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2019년도 방송평가 개요입니다. 평가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대상은 157개 사업자(367개 방송국)로 매체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가 영역은 내용·편성·운영 3개 영역이며, 분야별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가 산출되었습니다. 평가 절차는 방송평가지원단에서 방송평가 결과보고서를 마련하면 방송평가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심의하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가결과를 의결한 후에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다음 3쪽 <4> 추진경과입니다. 올해 4월 「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한 이후 6월에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평가 자료를 접수하고, 7월~8월 동안 방송평가지원단의 방송평가 자료 조사 및 검증을 거쳐 9월에는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10월에는 SO, 위성 등 비지상파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4쪽 <5> 2018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자별 평가항목 수, 평가항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점을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재설정에 따라 영역별 및 평가항목별 배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법령 위반 등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평가

항목에 추가되거나 신설된 사항은 아랫부분의 동그라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표>는 '18년도, '19년도 매체별 방송평가의 총점입니다. 5쪽 <6> 2019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 (1) 지상파TV입니다. 총점은 700점으로 평가점수는 KBS1 563점, KBS2 483점, MBC 577점, SBS 505점입니다. 프로그램 수상실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심의·편성 규정 준수 여부 및 관계법령 위반 등에서 사업자간 점수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점수실적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EBS 관련입니다. EBS의 평가점수는 539점이며, 자체심의 프로그램 수상실적 등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쪽 <2> 지역민방TV입니다. 총점은 600점으로 평가점수는 광주방송 451점, 대전방송 466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420점, 울산방송 445점, 전주방송 431점, 제주방송 414점, 청주방송 425점, 케이엔엔(부산) 429점, 티비씨(대구) 474점, G1(강원) 462점이며, 프로그램 수상실적, 자체심의, 시청자 의견반영 등 항목에서 사업자간 점수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점수 실적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3) 지상파 라디오입니다. 총점은 300점으로 AM의 경우 KBS1 202점, KBS2 153점, MBC 211점, SBS 190점이고, FM의 경우 KBS1 163점, KBS2 150점, MBC 180점, SBS 190점이며, 재난방송 편성, 인적자원 투자 등의 항목에서 사업자간 점수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실적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4) 지상파 DMB TV입니다. 총점은 300점으로 지상파 계열 사업자의 경우 KBS 173점, MBC 201점, SBS 170점이고, 비(非)지상파 계열의 경우 유원미디어 214점, 와이티엔디엠비 188점, 한국디엠비 212점이며, 프로그램 수상실적, 재무건전성 등의 항목에서 사업자간 점수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 비(非)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1) 종합 편성 PP입니다. 총점은 600점으로, 평가점수는 매일방송 452점, 조선방송 486점, 제이티비씨 494점, 채널에이 484점이며, 프로그램 수상실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의 항목에서 사업자간 점수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도전문 PP입니다. 총점은 500점으로 평가점수는 연합뉴스티브이 382점, 와이티엔 422점이며, 프로그램 수상실적, 자체심의 등 항목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3) 홈쇼핑 PP입니다. 총점은 500점으로 평가점수는 공영홈쇼핑 369점, 씨제이이엔엠 361점, 엔에스쇼핑 368점, 우리홈쇼핑 412점, 지에스홈쇼핑 447점, 현대홈쇼핑 434점, 홈앤쇼핑 404점이며, 자체 심의, 재무건전성 등의 항목에서 사업자간 점수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쪽 MSO·위성 방송입니다. 모두 총점은 500점으로 MSO의 경우 딜라이브 352점, 씨엠비 325점, 엘지헬로비전 396점, 티브로드 373점, 현대에이치씨엔 362점이며, 인적개발 투자, 콘텐츠/기술 투자 등의 항목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위성방송입니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평가점수는 348점이며, 콘텐츠/기술투자, 장애인/여성 고용 등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2쪽 <7> 방송평가 절차 개선사항입니다. 방송평가 결과(안)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방송실시 결과의 본 평가가 아닌 절차에 대한 개선으로 2021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8>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19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사무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평가한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모두 평가점수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파 가운데 특히 KBS의 점수 하락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 점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2018년도에 개정된 바뀐 평가기준에 따라서 점수 자체가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감점을 원 항목에서 감점하지 않고 그다음에 총점에서 감점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늘어나서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MBC는 약간씩 점수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 KBS는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평가를 마친 뒤에 KBS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반영했는데, 2차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1차 자료 제출이 상당히 무성의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차로 제출한 자료가 맞다면 최초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가 매우 부실하고 무성의하고 부실했다는 것을 KBS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자료를 다 반영해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KBS가 감점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니 감점이 2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UHD 편성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KBS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고 최초 UHD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세운 계획에 비해 요즘은 편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KBS가 UHD 편성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방통위와 또는 여러 국가기관과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점요인을 보면 감점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KBS의 인력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의 인력구조 문제는 하루아침에 감사원이 올 해 지적했다고 해서 내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KBS가 근래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고 국민들에게 손 벌려야 할 일이 많은데 그렇다면 KBS가 먼저 아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나 또는 인력 구조조정을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KBS는 이 조사결과가 본인들에게 불리했다는 불평을 할 일이 아니라 KBS가 새로운 각오를 하는 다잡는 그런 원 자료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사무처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수고하셨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방송평가를 해 주신 방송평가위원회 김창룡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방송평가 결과는 방통위 그리고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결과 또 그 평가로 보입니다. 방송사업자들은 총점이나 또 거기에서 비롯된 순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개별 항목에 대해서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별 항목에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2018년도에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을 반영해서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가 오늘 보고가 됐고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에 대한 평가는 방송의 공정성과 그 다음에 객관성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2018년도에 변경된 방송평가가 2019년 또는 2020년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질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검토해야 합니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맞는 평가제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사 간 특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로 과연 수치화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점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후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방송종사자들에게도 이 평가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 담아서 점수가 몇 점이나에 치우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맞도록 방송사로서 본인의 목적에 충실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도 이번에 방송평가위원장을 맡았는데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평가항목이나 기준, 또 감점 요인 방식 등이 현재 방송환경이나 미디어 변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해서 이의제기 방식이나 여러 가지 자료제출 과정의 문제점들을 내년에 연구반을 운영해서 종합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개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 지적들을 잘 유념해서 어떻게 하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또 나아가서 방송의 저널리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방송평가제도는 단순히 성과를 평가해서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점수를 발표함으로써 방송사 간 순위를 정하고 이런 개념으로 설계됐다기보다는 방송사들이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방송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고 보입니다. 결국 방송평가 제도를 통해 방송사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제도에 대한 재검토 이런 부분들도 그런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송평가의 정당성을 높이고 문제되었던 이의제기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과정 전반을 새롭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0-65-293)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경과입니다. 하단 부분의 10월 28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10월에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자 의견 2건만 접수되었습니다. 3쪽 <4>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편성고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편성비율은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구간의 수중계 편성비율 68%를 기준으로 50억원 구간별로 1%p씩 증가하고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하부터는 50억원 구간별로 2%p씩 증가하며,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상의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방송사업매출액별 수중계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상 사업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사업자의 법인명을 현행화하고 지상파라디오방송 사업자의 경우 대상 사업장에서 2020년도 3월 폐업한 경기방송을 제외합니다. 다음 단서조항을 두어 급격한 수중계 비율 변화로 인한 업계의 과도한 부담·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전년대비 최대 비율변화를 1%p로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과규정입니다. 지역민방 사업자의 편성계획, 경영전략 수립 등을 고려하여 고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 <5> 행정예고 결과입니다. 먼저 G1은 편성고시 개정 시 수중계 허용비율이 하락하고, 송신·제작 환경 등이 열악한 3차 민방의 자체편성비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방송사업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체편성비율 상승이 없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방송의 지역성 훼손 방지를 위해 수중계 비율이 현재 대비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는 수준에서 방송사업매출액 구간별 수중계 비율을 결정하였으며, 산정기준 합리화에 따른 일부 방송사의 수중계 비율 감소는 불가피하며, 전년대비 수중계 비율변화를 1%p로 제한하고, 고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는 등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가 존재하여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방송은 개정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조항, 다만 각 호의 비율은 전년도 비율 대비 채널별로 매분기 1%p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없다는 ‘매분기’가 해석상 혼동을 줄 수 있어 조문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무처는 이를 수용하여 조문 의미 명확화 및 혼동 방지를 위해 ‘매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6>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입니다.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조항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행정예고안 및 수정안은 아래 <표>와 이어지는 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4쪽의 제2조 제1항은

지상파방송TV 방송사에 대한 사항이며, 이어지는 5쪽 중간 하단의 제2항은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6쪽 <7> 항후일정입니다.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관보 게재 후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문제는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난번에 이미 한 번 나왔던 이야기이고 G1의 그런 의견은 충분히 보완장치를 마련했고 또 유일하게 G1만 지역방송 가운데서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지역성을 살리는 방송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검토의견을 주신 사무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저도 사무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상파 방송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민방의 경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편성비율을 적절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민방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통위의 이번 개정 취지를 이해해서 이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저도 원안 동의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개정을 해서 변경기간을 1년씩이나 주는 것은 괜찮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괜찮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모두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6분 폐회 】